장 백 산 천 지

제219 기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파룬궁 박해한 길림성 전 부성장 톈쉐런, 무기징역 선고 받아

길림성 전 부성장 톈쉐런에 무기징역 선고

[밍후이왕통신원 길림성보도]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 사당관원들은 모두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긴 무리이다. 그들은 중국공산당의 부패척결이란 명목의 내부투쟁 추태극에서 감방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좋은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보응을 받은 것이다.

2013년 11월 1일 오전 9시, 북경시 제1중급법원에서 길림성 전 부성장 톈쉐런(田學仁)의 수뢰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톈쉐런을 수뢰죄로 무기징역에 처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톈쉐런이 직권을 이용해 광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여 사망케 하고 불구가 되게 한 죄악은 덮어 감추어졌다. 법정에서 톈쉐런의 변호사는 당사자의 죄가 가볍다는 변호를 했고, 톈쉐런 본인은 모든 죄를 인정했다. 금년에 66세인 톈쉐런은 체포되기 전에 길림성 부성장 직위에서 물러난 후 길림은행 당위서기, 이사장으로 있었다.

톈쉐런이 고위층의 신임을 받게 된 것은 금전으로 환심을 산 것 외에 더욱 중요한 원인은 그가 장쩌민을 바싹 따라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톈쉐런은 여러 차례 공안, 검찰, 법원, 사법국과 '610'악도들을 지휘해 수백 명의 대법제자를 박해해 죽이고 불구로 만들었으며 수천 명을 불법적으로 판결하고 노동교양을 시켰다.

1. 미친 듯이 재물을 긁어모으다

톈쉐런은 1995년부터 2011년 사이에 맡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해 10명에게 기업경영과 간부직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전후 85차례 위에서 말한 사람들로부터 인민폐 4백46만 원과 2백9만 달러 등 인민폐로 총 1919.3575만 원을 받았다.

톈쉐런은 10여 년의 관료 경력에서 지속적으로 수뢰했는데 제일 적을 때에는 5천 원, 제일 많을 때에는 한 번에 백만 달러를 받았다. 기본상 장춘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돈을 넘겨받았으며, 심지어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에서도 받았다.

2. 파룬궁을 박해한 3명의 경찰에게서 돈을 받고 승진하게 도와주다

조사에 따르면 톈쉐런을 통해 돈으로 관직을 산사람이 5명인데 그중 정법경찰이 3명이다.

톈쉐런이 제일 처음 수뢰한 것은 장춘시 부서기로 정법공작을 주관할 때였다. 고소장에는 톈쉐런이 1995년 12월부터 2005년 10월 사이에 당시 장춘시 공안국 경제범죄 수사대대 밀수단속 대대장 쉬웨이민(徐爲民)의 부탁으로 쉬가 장춘시공안국 경제범죄 수사대대 부대장, 경제범죄 수사지대대장, 장춘시 공안국 경제수사대대정위로 승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다섯 차례에 걸쳐 쉬웨이민이 주는 인민폐 71.4605만 원을 받았다.

2001년 5월부터 2010년 8월 사이에 톈쉐런은 당시 중공 연길시위상무위원, 정법위원회서기, 공안국장인 선완후(申萬虎)가 연변 조선족자치주 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장으로 승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홉 차례에 걸쳐 선완후가 주는 인민폐 18.2768만 원을 받았다.

1998년 3월부터 2002년 새해 전, 톈쉐런은 당시 길림시 공안국 창이(昌邑)분국 국장 웨중톈(嶽忠田)의 부탁으로 웨중톈이 길림시 공안국부국장으로 승진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다섯 차례에 걸쳐 인민폐 11.2789만 원을 받았다. 웨중톈은 길림시 공안국 부국장으로 승진한 후 적극적으로 파룬궁박해에 참여했다. 왕젠궈(王建國), 왕민리(王敏麗), 소후이(邵慧)등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했는데 웨중톈이 주요 책임자이다.

길림시 공안국 상관인원들의 박해 수단은 (1)나선형 강철봉을 대법제자의 다리 위에 놓고 발로 밟는 고문. (2)겨자 기름 강제주입 고문. (3)팔을 뒤로 묶은 후 혹독하게 때리는 고문. (4)잔인하게 막대기로 하반신을 찌르는 고문. (5)비닐 제품으로 얼굴을 덮고 호흡을 못하게 하는 고문. (6)소금물을 강제 주입하는 고문 등이다.

고문 시연 그림: 팔을 뒤로 비틀어 묶다

3. 광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여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고, 수천 명을 판결 하고 노동교양을 시킨 죄로 악인방에 올랐다

톈쉐런은 길림시 서기와 연변자치주 서기, 길림성위 상무부성장으로 있는 기간에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을 바싹 따라 파룬궁 박해를 주관하고 길림성의 대법제자에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톈쉐런은 일찍 '파왕후이후이(法網恢恢)' 웹 사이트에 의해 악인방에 수록됐다.

톈쉐런은 여러 차례 공안, 검찰, 법원, 사법국과 '610'악도들을 지휘해 수백 명의 대법제자를 박해해 죽이고 불구로 만들었으며 수 천 명을 불법적으로 판결하고 노동교양을 시켰다. 그는 대법제자를 잔인하게 박해해 상전의 총애를 받았으며 또 돈을 써 관직을 사서 길림성 세 번째 책임자 직위에 올랐다. 밍후이왕의 폭로에 따르면 톈쉐런은 연변자치주 서기 기간에도 파룬궁수련생에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범해 많은 수련생이 박해받아 죽고 불구가 됐다.

(1)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생 양중팡(楊忠芳), 하루 밤 사이에 무참하게 맞아 죽다

양중팡

연변지구의 소재지 연길시에서 각 파출소는 파룬궁 박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연길시 공안국 국장 리둥주(李東洙)와 연길시 국보대대의 쉬샤오펑(許曉峰), 샤오빈(肖彬) 등 악당의 명령에 따라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잔혹하고 야만적인 박해를 했다. 이 몇 년 동안 연길시에서 발생한 엄중한 박해는 거의 모두 이 악당들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다.

2002년 7월 2일, 건공파출소의 경찰들은 지도원 위밍환(魚明煥)의 명령에 따라 하루 밤 사이에 연길시 연서가 벽돌공장 부근의 시위안(西苑)시장(지금은 리화위안 시장으로 변경-梨花苑市場)에서 익힌 음식 영업을 하는 대법제자 양중팡을 무참하게 때려 죽였다.

덕망이 높은 노학자 퍄오스하오(樸世浩) 교수 박해로 사망

박세호, 조선족. 60여세, 교수, 연변의학원에서 교직을 맡다.

박세호 교수는 덕망이 높은 노학자다. 그는 재능이 있는 전문가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많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였는바 문하생이 곳곳에 다 있다. 박 교수의 연구 성과는 수상을 했고 특허를 갖고 있다.

박세호 교수

1994년 8월 20일, 박세호 교수는 리훙쯔 대사께서 연길에서 하신 설법을 직접 경청하는 행운을 가졌다. 이때부터 그는 수련의 길을 걷게 되었다.

중공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후 파룬궁을 수련하고 신심에서 수혜를 받은 박세호 교수는 줄곧 민중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리고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진정한 목적을 폭로했다.

2002년 박세호 교수는 민중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윈난(雲南)에서 악인들에게 납치당한 후 연길 국보대대 악인들에 의해 연길로 압송되어 온 후 연길시구치소에 기한을 초과해 수개월 감금되어 있었다. 박세호 교수는 구치소에서 자기의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사악한 경찰의 잔혹한 박해를 받아 8월 21일 연길시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중공당국의 정보 봉쇄로 박세호 교수가 당한 참혹한 박해를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 구치소에서 박세호 교수를 본적 있는 파룬궁수련생의 말에 따르면, 당시 박세호 교수는 정신적, 육체적인 박해로 뼈만 앙상했고, 건장하던 몸집이 왜소했으며 얼굴에는 검푸른 멍이 들어 있었다.

박 교수의 박해사망소식은 각 계층의 인사들을 놀라게 했다. 연변의학원 책임자가 '박 교수는 구치소에서 박해로 사망했으며, 시신은 이미 화장했다.'고 발표해 이 소식을 확인했다. 그러나 구치소 경찰은 '박 교수는 집에서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소식을 확인하려고 구치소에 전화를 걸어 '의학원에서는 박 교수가 구치소에서 사망했다.'고 공포했다고 하자 경찰은 즉시 전화를 끊었다.

방역소 의사 퍄오지쯔(樸吉子)박해로 사망

박길자, 여, 조선족, 49세, 길림성 연길시 방역소 의사.

박길자

박길자 여사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간성혼수 등 많은 질병으로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으나 법을 얻은 후 건강을 다시 찾게 되었다. 그는 항상 "대법이 저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 그는 굳게 대법을 믿고, 대법을 실증한다는 이유로 장쩌민 깡패집단의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2001년 그는 연길시공안국에 납치되어 잔혹한 박해를 당했으며, 그해 9월 불법 노동교양을 당했다가 엄중한 병적 상태가 나타나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집으로 돌아 온 후 그는 더욱 열심히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공안에서 여러 번 그를 납치하려고 해 2003년 3월 그는 부득불 집을 떠나게 되었다. 유리표박하는 간고한 생활환경과 정신적 시달림에 그의 건강은 파괴되어 2004년 1월 8일 병원에서 세상을 떴다.

츠후이원(池輝文)은 박해로 반신불수가 되어 사망하고, 여섯 살 딸을 남기다

지휘문

지휘문의 딸

지휘문, 36세, 조선족, 길림성연길시 백화공사 직공. 지휘문은 장기간 연길시 연남파출소(현 건공파출소)의 경찰과 사악한 중공의 통제를 받는 주민 위원회의 소란과 박해를 당하다가 세뇌반에 납치되어 박해로 반신불수가 되었고, 2004년 4월 22일 여섯 살 어린

딸 지유경(池俞憬)을 남기고 억울하게 세상을 떴다.

2001년 8월과 국경절(중공사당이 중국에서 정권을 잡은 기념일)사이에 연남파출소의 지도원은 두 번이나 지휘문의 집에 무단 침입해 집을 수색하고 지휘문을 연길시 이란진에 있는 세뇌반에 납치해 박해했다. 지휘문은 박해로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어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 토했다. 사악한 경찰들은 그의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벌을 세우고, 운동장을 수십 바퀴를 돌게 했고, 구타하고 욕하고, 대법 사부님을 모욕하는 녹화영상을 보게 했다. 악인들은 지휘문에게 정신과 육체에 고통과 시달림을 주면서 '쩐, 싼, 런(真,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고 핍박했다.

아내가 면회를 갔을 때 지휘문은 등이 휘고 매우 수척해졌고, 얼굴이 검게 변해 있었는데 걸음걸이도 비틀거렸다. 사악한 경찰들은 "(파룬궁을)결별하지 않으면 영원히 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냉소하며 악담했다.

지휘문은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했다. 악인들은 각종 수단으로 박해를 멈추지 않았다. 지휘문의 건강은 갈수록 나빠졌고 등은 더욱 휘어들었으며, 걸음조차 걷기 힘들게 되었다.

세뇌반의 두목 박남수 등 악인들은 지휘문이 세뇌반에서 사망할까 두려워 지휘문의 아내에게서 인민폐 600원을 갈취한 후 지휘문을 풀어 주었다.

세뇌반에서 나온 후 지휘문의 건강은 날로 더 악화되었다. 그러나 연남파출소와 주민위원회는 지휘문에 대해 엄밀한 감시를 시작했다. 2004년 3월 12일 지휘문은 완전히 마비되고, 4월1일부터 음식을 먹지 못했으며, 4월 22일 연길시병원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억울하게 세상을 떴다.

그때 지휘문에게는 1999년 2월 10일에 출생한 6세 되는 지유경(池俞憬)이라고 부르는 딸이 있었다. 지휘문이 사망한 한 달 후에 지휘문의 아내는 외부의 핍박으로 집을 나갔다. 꼬마 유경은 할머니와 한 손이 없는 83세의 증조모에 의지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한스러운 세월을 살아가야했다.

쑹융화(宋永華) 박해로 사망

연길시 대법제자 송영화는 2001년 11월 28일 연길시국보대대의 악인들에게 납치되어 장기간 박해를 당하다가 2003년 10월 28일 화룡시구치소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⑵ 공중에 매달고 혹독하게 때리고, 가죽채찍으로 후려치고, 담배 불로 지지고, 옷을 홀딱 벗기고, 고환을 툭툭 튕기다

고문시연도(회화):불로 지지기

진청취안(金成權), 남, 조선족, 30여 세, 길림성 도문시 사람, 대학 졸업.

김성권은 1994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했다. 2001년 1월부터 구류를 당하고, 세뇌반에 감금되고, 불법적인 5년 형을 받아 가혹한 형벌을 당했다.

2002년 6월 7일, 김성권은 화룡시 형사대에 납치되고, 컴퓨터, 프린터 등 7천 위안의 설비를 강탈당했다. 화룡시 형사대의 사악한 경찰은 그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운 후 직경이 2.5~3 센티미터 굵기의 몽둥이로 혹독한 구타를 가했다. 이런 몽둥이가 두 개나 부러져 나갔다. 악인들은 구두신은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 걸음도 걷기 힘들게 했다. 악인들은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밥 한술,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그날 저녁으로 그를 화룡구치소에 감금했다.

6월 13일 저녁 5시, 악인들은 그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운 후 6명의 악인들이 15일 동안 넉넉히 먹을 양식을 갖고 화룡시에서 60리 떨어진 한 림장으로 그를 압송해 가혹한 박해를 했다. 악인들은 만약 때려 죽으면 두만강에 버려 밀항한 북조선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하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사악한 경찰들은 한밤중부터 시작해 수갑과 족쇄를 채운 김성권을 공중에 달아매고 때렸다. 수갑의 톱니가 팔목의 살을 파고들었다. 선혈이 팔을 따라 땅에 흘러내리고, 아픔은 뼈에까지 파고들었다. 윤번으로 악행을 가하는 6명의 악인들은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몽둥이, 구두 발, 주먹, 가죽채찍이 빗발처럼 김성권의 몸에 떨어졌다. 김성권의 입은 접착테이프로 밀봉되었다. 악인들은 담뱃불로 김성권의 콧구멍을 지졌다. 연속 여섯 대를 태웠다. 기절해 쓰러진 김성권에게 찬물을 끼얹고 정신을 차리면 또 다시 혹형을 가했다.

좋은 사람으로 되려는 것이 죄인 듯 앞길이 창창한 청년을 폐인으로 만들었다. 김성권은 왼쪽 심장부위가 부어올랐고, 배뇨가 힘들었으며, 척추가 손상되어 물건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또한 기억력이 손상되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뒷골이 쑤시고 아프며,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악인들은 그의 가족에게 인민폐 천 7백 원을 내게 하고 연변병원에 가서 진찰하게 했다.

불법적인 심판을 받을 때 김성권은 자신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하고, 엄중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진술했으나 소위 '인민검찰관'이란 사람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2002년 11월, 김성권은 소위 '법률 실행을 파괴한 죄'로 불법 5년 형을 받고, 2003년 2월 25일 길림감옥으로 압송되었다. 감옥에서 악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김성권을 물 공급실로 끌고 가서 벽에 머리를 박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고무곤봉으로 때리

고, 불로 수염과 눈썹을 태웠다. 추호의 인간성도 없는 악인들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쾌락으로 삼았다. 사악한 경찰들은 하루에 7, 8차례씩 김성권의 옷을 홀딱 벗기고 고환을 툭툭 튕기고, 허벅지 살을 꼬집어 두 허벅지에 피딱지가 다닥다닥 붙었다. 김성권은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쇠기를 가득 박은 널빤지 위에 가부좌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는 벌을 받았다. 비인간적인 잔혹한 박해로 김성권의 체중은 35kg도 안 되었다.

감옥의 사악한 경찰들은 포상금을 위해 광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김성권은 26일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잔혹한 박해에 시달렸다.

(3) 호랑이 의자에 앉히기, 허공에 달아매기, 잠을 재우지 않기 등 고문

고문시연도: 호랑이 의자

2003년 3월, 전문적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책임진 연길시공안국 국장 리둥주의 음모 획책에 따라 조양파출소 소장 류신원(劉新文)이 관할 지역 민경들을 거느리고 연길시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대 납치라는 사악한 바람을 일으켰다. 당시 40여명 파룬궁수련생이 납치당했는데 그중 대부분은 여성 파룬궁수련생이었다.

그들은 비열한 수법으로 파룬궁수련생에게 잔인한 박해를 가했다. 많은 여성파룬궁수련생을 팔을 뒤로 묶은 후 공중에 10시간 넘게 달아맸고, 비닐봉투를 머리에 씌우며, 밧줄로 달아매고(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두 다리 혹은 한 다리에 족쇄를 채운 후 사람을 반공중에 달아 매여 모든 중량이 두 손에 쏠리게 한다.), 호랑이 의자에 앉히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수단으로 박해했다.

사악한 경찰들은 또 구류, 노동교양, 판결 등으로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을 위협 공갈해 파룬궁 수련생 가족의 돈과 재물을 갈취했다.

(4) 수백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세뇌반과 노동교양소에 감금되어 박해를 당하다

2000년 11월부터 연변주위서기 톈쉐런과 연길시선전부부장 한룽건(韓龍根), 천위장(陳玉江)의 명령에 따라 전 연길시 '610사무실'의 두목 퍄오난주(樸南洙)와 후샤오옌(胡曉燕) 등이 획책하여 연길시에서 4기의 강제적인 세뇌반을 열었다. 제1기에 파룬궁수련생 40여 명이 박해 당했고, 제2기에는 30여명이 박해 당했는데 수단은 갈수록 잔인해졌다.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 파룬궁수련생은 구치소로 이송해 20여 종의 형구로 박해를 가했으며,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면 노동교양소로 보내 더욱 잔혹한 박해를 당하게 했다.

2000년 11월, 12월, 2001년 11월 16일, 12월 6일, 총 4기 세뇌반에 200여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해 박해했다.

악인들은 어린이와 수유기의 여성, 80세의 노인도 세뇌반에 납치해 박해를 가했다. 영하 20도가 되는 동북의 추운겨울에 파룬궁수련생을 실외에 서있게 하는 벌을 주었다. 옷을 얇게 입히고 장갑, 모자, 목수건을 착용 못하게 하고 몇 시간씩 서있게 해 파룬궁수련생들은 얼어서 감각을 잃었는데 또 강박으로 16시간이나 미용체조를 하게 했다.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잔인한 박해로 반신불수가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겼다.

리원저(李文哲), 남, 30여세, 길림성 연길시사람. 리문철이 길림 인마허(馬河)노동교양소에 감금되어 박해를 당하면서도 '쩐, 싼, 런(真,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자 악인들은 2002년 12월, 리문철을 노동교양소 1대대에 감금했다. 리문철은 죄수복을 입는 것을 거절하고, 머리를 깎는 것을 거절하고 견결히 파룬궁수련을 견지하자 1대대 교도원 장민(薑敏), 대장 자오주성(趙久勝), 간사 천(陳), 대장 장(張) 등 5,6명의 악인들은 사무실에서 리문철을 때렸는데 물컵이 찌그러졌고, 리문철은 결국 기절해 쓰러졌다. 파룬따파를 모독하는 신년만회에서 리문철은 '파룬따파는 좋다!' '파룬따파는 정법이다!'라고 외쳤다. 악인들은 당장에 리문철을 끌고 나가 혹독하게 때렸다. 리문철의 머리는 맞아서 부어올랐고, 얼굴에는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눈을 뜨지도 못했다. 또 '엄관대(嚴管隊)'에 감금하고 더 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1대대의 사악한 경찰은 '엄관대'에서 박해를 약하게 할 것 같아 직접 '엄관대'에 가서 '바오자(감시자, 노동교양 범죄자)'에게 리문철을 죽도록 때리라고 명령했다. 관리과과장 장궈신(張國新)은 이런 위법행위를 보고서도 제지하지 않았다.

2001년 상반년까지 연변자치주 8개현과 시의 공검법(公檢法)부문에서 500여명의 연변파룬궁수련생을 판결하고 노동교양을 시켰다. 2002년 3월 5일 장춘 파룬궁수련생들이 유선텔레비전에 파룬궁진상 영상자료를 삽입방송한 후 연변에서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납치되어 참혹한 박해를 당했다.

4. 하늘이 징벌하다

사람이 행하면 하늘이 지켜보거늘,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톈쉐런의 죄행은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다.

톈쉐런이 직권을 이용해 광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해 사망하고 불구로 되게 한 죄악은 은폐되었지만 세기의 대심판이 톈쉐런을 기다리고 있다. 톈쉐런과 모든 파룬궁을 박해한 악인들은 고문죄, 반인륜적인 죄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정의는 인간세상에서 꼭 재현될 것이다.